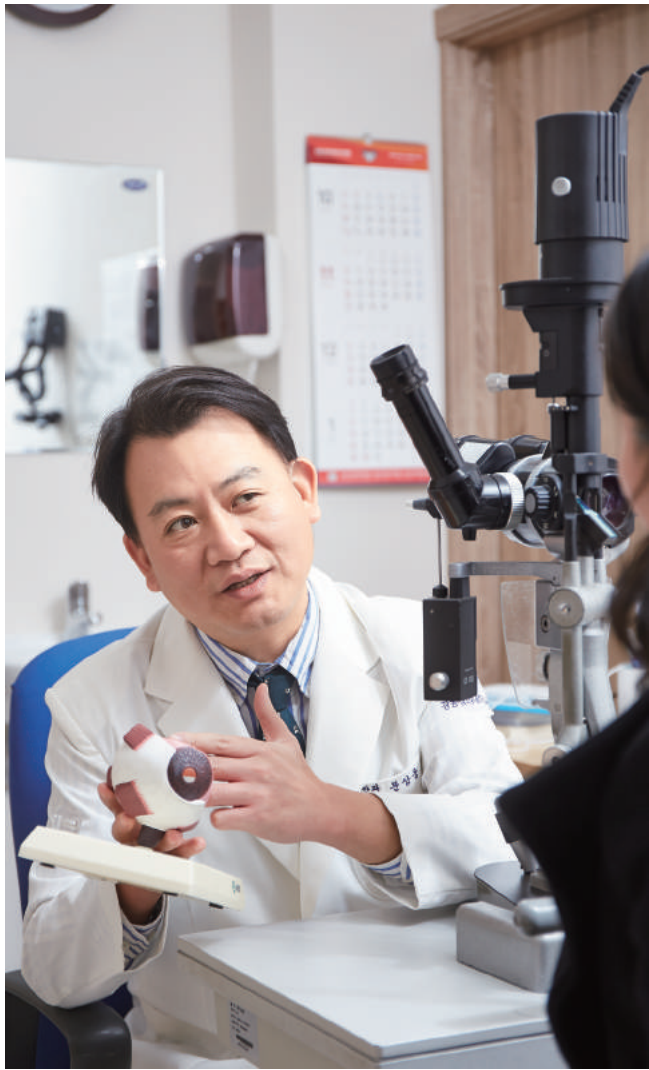




KHNMC DOCTOR



안과
문상웅 교수

전문진료분야

망막 유리체, 황반질환, 백내장, 포도막염

문의

02-440-7760



QR코드를 스캔하면 안과 문상웅 교수
(메디컬 파워)의 인터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문상웅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명의 육성 프로그램인 '목련교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미 '유능'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뇨합병증은 눈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눈 합병증이 오면 결국 신장 합병증이 뒤따르고 말초신경 합병증도 옵니다. 당뇨망막병증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검토와 평가도 필요한 것이죠. 심각한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오면 즉각 우리 병원 내과에 보고하고, 진료를 받도록 연계해 주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문 교수는 당뇨망막병증 환자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신경과 등과 서로 연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협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불가능에 도전
환자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게 보람

이런 문상웅 교수이니, 진료철학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옛날은 그렇다 치고, 지금도 그렇게 놓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의학기술로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희망 뒤에 절망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가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그렇다고 문상웅 교수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졌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대처를 정말 잘했는데도 눈 상태가 원체 나빠서 결국 실명되고 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말하지만, 환자 본인 각자에게는 오로지 100%만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막진료는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한계를 절감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웅 교수의 약속인지 다짐인지 모를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눈이 나빠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든든하게 믿음이 가는 안과의사 한 분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 의사가 강동경희대병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렵니다.



www.khnmc.or.kr



www.facebook.com/khnmc2006



blog.naver.com/khnmc06



www.youtube.com/user/KHNMC200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 대표전화 : 1577-5800

망막질환 치료의 희망 등대 실명 위기의 환자에게 빛을 되찾아주다



안과 문상웅 교수

- 당뇨병성 망막증, 노년 황반변성, 망막박리 망막질환 명의
- 눈속 1mm 투명막 수술로 세상의 빛과 연결하다
- 환자의 기억 속에 유능한 의사로 남고파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치료로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 당뇨병망막증 환자 협진시스템 구축 내분비내과·신장내과·신경과 협의 환자에게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도움 주려 노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문상웅 교수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암흑세계에 갇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데 보고픈 것, 봐야할 것 해서 볼거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접촉하는 주된 통로가 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눈의 쓰임새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니까 눈 건강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당연히 많으시겠죠? 안과 문상웅 교수를 찾아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 교수는 망막질환의 전문가로서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년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증(당뇨망막병증), 망막박리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명을 초래하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망막질환
그냥 포기했던 과거와 달리 치료 가능성
영역이 넓어져

망막은 눈 안에 있는 신경층입니다. 시각기능과 관련된 신경조직이죠. 안구 뒷부분의 안쪽 벽에 붙어있는 투명한 막인데 두께가 0.3mm~1mm 이하입니다. 우리 눈을 사진기로 본다면 필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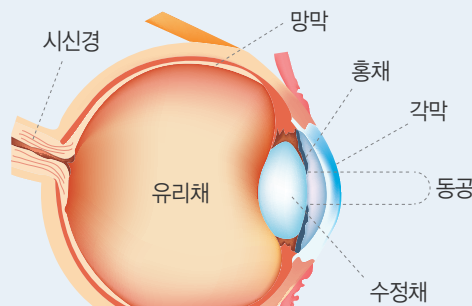
“옛날에는 망막에 문제가 있으면 못 고친다고 그냥 손을 놓았습니다. 실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백내장이나 다른 질환들에 비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급속한 발전 덕분이죠. 사실 망막질환은 의학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문상웅 교수는 망막질환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노화에 의해서 신경이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자외선에 노출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망막질환은 자외선이란 상관이 아주 많아요. 60~70년 이상 자외선을 쬔면 점점 신경이



눈의 구조



감당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망막질환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수명연장 못지않게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력을 유지해야 길어진 노년의 삶이 질적으로 풍족하겠죠.”

문상웅 교수는 최근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SD)로 1년간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미국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는 노인 인구가 많고 자외선이 강하다보니 자연히 망막질환 연구가 강한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최신 약물치료를 연구하고 온 것이죠. 앞으로 문 교수가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자못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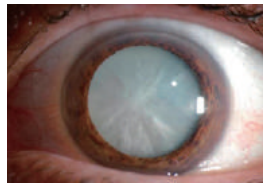
당뇨병성 망막증, 노년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이 대표적인 망막질환

망막질환은 대표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노년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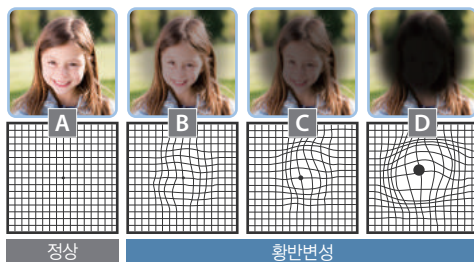
“당뇨망막병증은 눈에 생기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에 의해서 서서히 망막 모세혈관 같은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황반 부위가 붓거나,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엉겨 붙고 피가 터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일뿐더러,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혈까지 동반합니다. 출혈은 시력소실의 원인이지요. 망막 순환장애에는 고혈압 망막병증도 있습니다. 갑자기 동맥이나 정맥 같은 큰 혈관들이 막히고, 시력저하도 급격하게 오죠. 마치 머릿속에 중풍이 오는 것과 비슷해서 흔히 눈 중풍이라고도 부릅니다.”

실명을 초래하는 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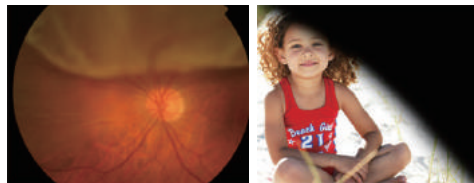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로서 선명하고 또렷한 중심시력을 담당합니다.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선이 굵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사물의 중심이 까맣거나 빈 것처럼 됩니다.

“노년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낡아서 변성되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신경층 밑에 자꾸 쌓여서 신경이 낡아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노화로 인한 것이니까요. 문제는 거기에서 신생 혈관이 자라고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명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갑자기 실명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말 그대로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망막이 떨어지면 신경세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를 가리다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죠. 수술로 망막을 안구 벽에 다시 붙여야 합니다.”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노인성 백내장 역시 시력저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죠. 그런데 노화에 의해 백내장이 오지만 황반변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로 인해 백내장도 오고 당뇨망막병증도 옵니다. 그래서 노화성이나 당뇨병성 시력저하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망막 진료까지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유능한 의사로 기억되고파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치료로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위에 질환은 모두 시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잘 모르고 선불리 접근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고 꼼꼼하게 변화를 따져가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죠. 치료과정 자체도 늘 긴장의 연속인 데다, 시기를 놓친 환자가 결국 실명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다행히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치료를 한다면 실명으로 진행 되는 코스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학생 때부터 신경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문상웅 교수는 자기를 안과 서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미답의 영역이 많은 망막질환을 다룬다는 데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다는 게 고맙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실명 위기를 맞아 절망하는 환자들에게 시력을 어느 정도 되찾아줄 수 있으니 성취감과 보람이 아주 큼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양쪽 눈이 다 실명됐던 할머니 환자가 생각나는군요. 상태가 안 좋아서 섯 수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수술했는데 한두 달 쯤 지난 후에, ‘아이고, 날 고쳐준 우리 선생님, 맨날 목소리만 듣다가 드디어 얼굴이 보이네요.’ 하시면서 고마워하셨어요. 제 스스로도,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상웅 교수는 환자의 기억 속에 어떤 의사로 남고 싶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능한 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환자에게 딱힌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하면 명확하게 좋아질지, 해도 소용이 없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안과
문상웅 교수

